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적발

서해어업관리단은 어린 물고기까지 낚획하는 신안선적 소형기선저인망 A호를 검거하고 어구를 전량 압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신안군 하의도 인근 해상에서 불잡했다.

일명 '고데구리'라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은 전개판을 이용해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어종을 가리지 않고 어린 물고기까지 낚획하는 불법어업이다. 2004년 4월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감척사업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으로 서해안에서는 거의 사라진 어업이다.

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인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업인은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고데구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불법어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하계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전남도교육청, 10일까지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외 4개 기관에서 초·중·고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하계 교원 교육정보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따른 학교 중심 소프트웨어(SW)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교급별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연수를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교육정보화역량강화과정과 교실수업개선 스마트교육, SW교육의 세 영역을 권역별로 운영해 교원의 생활근거지에 따라 연수기관을 선택, 안정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 연수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 200여명의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SW교육 관리자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한다.

/고광민 기자

만취해 소란 피운 50대 입건

○...술에 만취한 50대 남자가 동네마트에서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행.

○...지난달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 모씨(53)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5분께 서구 화정동의 한 마트에 술병을 들고 들어와 갑자기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남씨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병을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오히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냐"며 혀를 질질.

/김종찬 기자

기록적 폭염 '에어컨 냉방병' 주의보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면서 이른바 '냉방병'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선 실내의 온도 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주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31일 광주지역 병·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두통과 피로감·무력감·집중력 장애·콧물·재채기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냉방병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냉방병에 걸리면 대부분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오한이 오고 두통과 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목도 따끔거리는 통증이 유발돼 호흡기가 불편해지고, 심한 사람은 배

병원, 피로·복통·설사 증세 호소 환자 북적 전문가 "냉방 중 적어도 1시간 1회 환기 필요"

가 아프고 변비가 오거나 반대로 설사가 유발될 수도 있다.

쉽게 피로해지고 여성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특히, 면역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냉방병의 주된 원인은 실내의 큰 온도 차이로 인한 신체 조절기능 부조화와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세균·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알려졌다.

냉방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의 공기 질 저하, 에어컨 냉각수의 세균 오염도 냉방병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사무용 빌딩에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환기가 잘 안돼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직장인 신모씨(40)는 "최근 직장 출근과 함께 심한 두통과 어지러운 증세가 있었다"며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냉방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25도 전후 또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맞추는 게 좋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위쪽으로 조절하거나 얇은 옷 등을 걸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흡연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으로 신체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이 에어컨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코 막힘, 콧물, 재채기 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벽 쪽을 향하게 해서 1~2시간만 켜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신체 리듬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구 가정의학과 한 관계자는 "냉방병 발생은 허약한 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름에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냉방병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 온도를 무리하게 낮추지 않도록 하고, 강하게 잠시 틀어 놓았다가 끄는 것보다는 약하게 여러 시간을 틀어 놓는 것이 더 좋다"면서 "선풍기는 바람을 직접 쐬면 두통, 체온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벽 쪽을 향하게 해서 1~2시간만 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바른 법 집행으로 사회정의 구현"

최관호 신임 전남경찰청장 취임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 정신을 구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관호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54)은 지난달 31일 전남경찰청 남도 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경찰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가 첫 번째 과제"라며 "바르고 유연한 법 집행으로 사회를 더 정의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토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직 내부에서 '자율'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동료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날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현장치안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참석시키지 않고 지방청 내 희망자만 참석하도록



시하고 직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최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최 청장은 간부후보 39기 출신으로 경찰청 감사담당관·광주청 제1부장·전북청 제2부장·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나라 기자

했다. 또 직원들의 바람을 담은 동영상 시청과 청장 취임 인사로만 짧게 진행돼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우선시하고 직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최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최 청장은 간부후보 39기 출신으로 경찰청 감사담당관·광주청 제1부장·전북청 제2부장·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나라 기자



올해 첫 노지 벼베기 행사

지난달 31일 오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서 올해 전국 첫 노지 벼 베기 행사가 열렸다. 이번 벼 베기는 지난 3월 12일 극조생종인 '기라라 397' 품종을 심은지 140일 만에 '하늘아래 첫쌀 순천 햅쌀' 브랜드로 전국 하나로 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순천=박경식 기자

남구 입암마을 새 진출입로 갈등 해소

권익위 현장 조정...경로당 앞 연결해 경사 낮추기로

위험한 도로 구조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우려됐던 남구 입암마을 새 진출입로 개설 계획이 바뀐다.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

르면 전남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권익위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 진출입로 경사를 낮추고 경로당 앞 도로까지 연결해달라는

입암마을 주민(63명)들의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입암마을 주민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마을 진출입로를 보행로

로 이용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암마을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출입로 신설을 계획했다.

주민들은 새 진출입로 경사가 가파른 데다 큰 도로와 바로 연결돼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지난해 9월부터 마을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다.

이러한 집단행동에도 주택공사 측이 "신설 진출입로가 규정에 따른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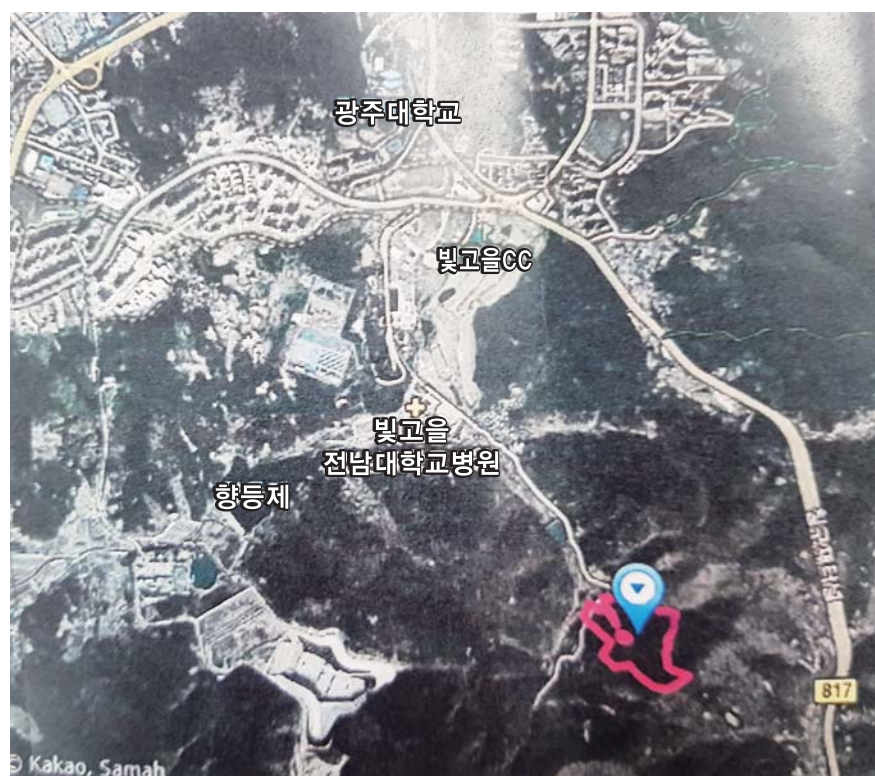
계이고, 경로당 앞 도로는 불법으로 조성돼 연결이 어렵다"며 거부하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주택공사는 새 진출입로 시작지점을 조정해 경로당 앞을 연결하고 경사는 낮추기로 했다.

남구는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